

[랑송시]

■ 김동진

달려라 홍마야



붉은 초롱 높이 걸린
영춘대길의 복대문을 열고
달려온 축복의 붉은 말이야

아침노을에 붉게 물든 한몸은
칠혹의 어둠을 불사른 불명이
얼어붙은 령하의 대지에
해동의 뜨거운 바람을 안고 왔다

해살로 붉은 털을 다듬고
노을로 붉은 털을 감싸고
일사천리로 달려온
병오년의 홍마

높뛰는 심장으로
세운 붉은 갈기는
천지의 풍운을
헤가르는 기발이요
땅을 차고 내달리는 발굽소리는
지축을 흔드는
진군의 나팔소리다

낮에는 해님을 태우고
밤에는 달님과 별님을 태우고
청춘의 꿈이 있는 곳으로
노래와 춤이 있는 곳으로
경쾌하게 달리는 우리의 홍마

홍마의 발굽이 닿이는 곳에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홍마의 발굽이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새길이 열리거늘

우리 모두 저 붉은 말을 타고
새해의 눈부신 태양 아래
진달래꽃 피어나고
노고지리 노래하는
우리의 봄을 맞으려 가자

달려라 홍마야
번영과 창성으로 설레이는
새 희망의 푸른 언덕을 향해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라

[수필]

“환갑나이에 뭐하러 그런 골목길 아 빠트단지에, 그것마저 엘리베이터도 없 는 4층짜리 집을 사느냐?”는 친구들 의 말이 아직도 귀가에 맴돈다.

정년을 맞아 퇴직한 뒤 시집간 딸 의 자리를 메워줄 양으로 일본에 서 류학하고 돌아온 아들이 국가 공 무원시험에 합격되어 시정부에 몇해 간 출근하다 보니 집안엔 그래도 화 기가 돌았다. 그런데 아들이 자치 주 수부 연길로 전근되어 집안은 새 끼들이 성장해서 날아간 산까지 동지 처럼 온기가 없었다. 그래도 나름대 로 이런저런 취미를 찾아 걷기운동 도 하고 외각지대 농촌마을이나 풍 경구도 구경 못한 곳들이 많아 부부 동반으로 산책 삼아 다녔지만 여전 히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다. 그래서 이젠 아니다 싶어 아들을 따라 연길 로 이사할 결심을 내렸다.

그런데 사려는 집의 위치와 구조 를 놓고도 이해와 관점이 달라 싱경 이질이 많았다.

안해는 병원과 가깝고 교통 로 선도 많고 시장도 가까운 곳, 그리 고 나이를 먹었으니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이면 좋겠다 했고 나는 나대로 의 욕심에 그냥 단지내에 잔디가 깔 려있고 숲이 우거지고 유치원이나 학 교가 가까워 애들이 뛰놀고 장난치 는 소리를 듣고 싶은 곳이면 좋겠다 고 주장했다.

근 몇달 동안 연길 시내를 돌고

돌다 지금의 연길 신흥가의 조용 한 한 아파트단지를 정하고 사기로 했다. 건물이 몇동 안되는 작은 단 지내에 소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비 롯해 원림이 숲을 이루고 잔디밭 도 잘 꾸며져있었다. 별로 할일없 는 몸이라 가까운 시장도 돌아 보고 한적한 외각도 여러곳 돌아 보았다. 어렵게 얻은 새터 생활이 라 좀더 많은 걸 체득할 기회였으니 말이다.

그보다도 유치원이 단지 뒤울안 에 있고 소학교가 가까워 뒤창문 을 열면 까만 머루알 같은 눈을 반짝 이며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붙곤 쥐 고 엽간체조를 하는 꼬맹이들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심정이 즐거울 수 가 없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아빠 엄마 혹 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깔 깔 웃으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 을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애들의 모습 을 보노라면 몇해간 상해에서 외손주 를 돌보던 일이 떠올라 그리움에 울컥 할 때도 많았다.

단지 밖의 좁다란 골목길은 어 떤 때는 장사군들이 모여와 메우기 도 한다. 하학하여 할머니의 손을 잡 고 가던 꼬맹이가 뭘 사내라고 투정 질이다. 나도 상해에서 외손자가 길 가의 난전에서 뭘 사내라 떼질을 써 늘 애먹었었다. 사주면 손자는 좋 다고 기뻐하는데 딸에게 들기면 아

단맞곤 했다.

옛날 나도 시골의 골목길에서 자 랐다. 인젠 낯선 풍경이 된 지 오래 다. 작은 변강 향진에서 시내로 전 근해 들어올 때도 가능하면 시내 중 심의 닭알 노란자위 같은 곳을 차 지하려고 발버둥쳤다. 그도 그럴 것 이 상업성 위치에 있는 집값은 엄 청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다. 지금 의 주택단지 골목길 한쪽에는 아직 도 개발되지 않은 낡은 단층집이 몇 채 있다.

울안엔 의례 채마밭이 있어 온 갓 푸성귀가 골목길을 더 풍요롭 게 해준다. 심은 작물도 배추, 쑥 갓, 호박, 옥수수, 마늘, 대파, 감 자, 상추 등... 내가 시골에서 자 란 때의 풍경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담장에 기여오른 구기자가 빨간 열 매를 맺어 시골 같은 풍경을 더해주 고 있다.

진정 도시 속 시골이고 사람 사 는 맛이 질게 풍기는 골목길 단지이 다. 휴일이면 골목에 아이들이 웅 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얼마나 그리 던 정경인가?!

그 모습을 되직하고 오랜만에 처 음 보는 양 가던 길을 멈추고 한동 안 바라보기도 한다. 장난기가 심 한 아이들도 두리번대는 내 모습이 신기했던지 울안에서 빼꼼히 내다보 군 한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고 개를 꾸뻑 수그리고 경례를 하며 싱

긋 웃기도 한다. 꽤나 수줍음을 많 이 타는 상해의 외손자를 보는 것 같아 펜스레 가슴이 찢해온다.

단지 안의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은 축구도 하고 엄마와 배구도 친다.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다. 이런 걸 보려고 내가 이 도시 속 골목 단 지를 선택했나 싶다. 필시 없던 복 이 마지막에 찾아온 것 같다. 단지 내에는 뽀뽀뽀뽀해도 아이들이 있어 야 제격이다. 그래야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아이들은 장래의 희망이기 때 문이다.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건 미 래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새싹 이 돌아야 잎이 생기고 숲도 이루 지 않겠는가?

내 고향 골목길은 어떤가, 어쩌 다 한번씩 가보면 아이들을 볼 수 가 없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 는다. 들리기는커녕 언제 들어보았 는지 기억조차 없다. 학교가 폐교되 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동네 골목길 은 얼마나 쓸쓸하고 삭막한 풍경인 가. 내 고향 골목은 이른봄이면 여러 가지 꽃들이 화단에 피어 향기가 그 읍하다. 꽃만 있고 아이들이 사라져 가는 동네 골목에 아이들의 왁자지 께 웃음소리가 넘쳐흘렀으면 얼마 나 좋을까?!

추억의 타래를 스치기만 해도 어느 새 기억 사이로 헤집고 들어서는 골목 길, 그 길엔 늘 그리움이 닿는다. 골 목길 풍경은 언제나 정겹다.

■ 성승권

골 목 길

[시]

■ 김승중

장백의 천불동 (외 4 수)

푸르디 푸른 하늘
치받드는 응심이런가
하냥 정다운 운무와
미인송의 신선스러움이런가
줄기줄기 정기 솟구치는
선남선녀의 곡선미런가
오, 내 고향
장백의 천불동 (千佛洞) 앞에서
메아리가 되고 싶어짐은—

장백의 들국화

그물그물 굴러 굴러 커가는
노오란 추억에 왕십지를 돌구며
불씨를 불이면
장백의 가을 기억가는
언덕 우의 들국화—
찬란히 찬란히 펼쳤다
울 누님의 향연으로—
소담히 소담히 울린다
내 고향 장백의 찬가로—

장백의 형제봉

진달래쳐녀
아릿다운 면사포이런가
나무군총각
눈빛같은 그리움이런가
예곳이 내 정든 선경이라
환생하려고 스물스물
열여섯 형제봉 내리고 내린다
뭇풍운소리 은은히 들려오는
장백의 사시를 찾고 찾는다...
오, 장백의 열여섯 형제봉의
그 멧가락의 끝은 어디—

장백의 운해

저 하늘과 지평선 사이에서
루루 천년 세월
나이테와 함께
억겁과 함께

두루마기 날리며
열두폭 치마자락 펄럭이며
전설의 한페이지를
장엄히 장엄히 쓰고 있다...

장백의 해돋이

차분히 차분히
억만 광년 헤쳐왔다
차분히 차분히
천불동에서 그 발광을
헤아려본다
서로서로 그 드바쁜
걸음걸음 속에서
오랜만에 놓아버리는 통감으로
저기 저 지평선을 새파랗게
흙치다 흙쳐본다...
장백의 정정, 그 성스러움이여!

[산문시]

■ 맹영수

가 을 레 찬

훈풍을 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울긋불긋 오색으로 물든 가을, 호수 에 비친 둥근달을 보듯 너무나 황홀 합니다.

높이 들린 파란 하늘은 초원을 보 는 듯하고 빨간 단풍은 화려하게 핀 꽃을 보는 듯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해빛의 다함없는 애무에 사과는 속 살마저 곱게 익어 빨갭게 웃고 논밭 의 벼들은 여유를 부리는 로인처럼 노랗게 드러누워 부른 배를 슬슬 만 지고 저기 저 다람쥐는 잣송이를 굴 리느라 두눈을 대롱거립니다. 자연 은 계절을 통해 가장 풍성한 식탁을 모두에게 반겨줍니다.

가을은 여행의 계절입니다.

노을에 물든 태호의 물결이 좋고 단풍이 든 장백산의 오솔길이 좋고 은은한 달빛 아래 북국의 밤길은 또 얼마나 이색적입니까?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흐드러진 단풍향... 가을 은 어망겔에도 그냥 배낭 하나만 메 고 훌쩍 어디론가로 떠나고 싶은 그 런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산에

올라야 풍경을 느끼듯 인간은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여유를 느끼며 한결 성숙해로 나아갑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명상에 잠기는 이 가을, 두툽한 책 은 몰라도 맥주 한잔, 커피 한잔을 놓고 뿌쉬킨의 시 한수를 읽어봄이 어떨까요?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 라도 괴로워말라. 울적한 날을 참고 견디여라. 즐거운 날들은 돌아오리 니...”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시구입 니까? 책 속에 길이 있고 희망이 있 습니다. 독서하는 사람은 삶의 속박 을 벗어난 멋진 사람입니다.

가을은 용서의 계절입니다.

꽃이 해를 품듯 가을은 열린 계절 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산이 나무를 품고 열매를 맺 어줍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안될 때 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을 품습니다. 바다는 강물을 품 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적’이 없습 니다. 모두가 그때뿐입니다. 겨울 이 오기 전에 바람처럼, 강물처럼 흘

려보냅니다. 곱게 보면 모두가 꽃이 고 노을입니다.

가을은 서정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수채화입니다. 나무, 바람, 강물, 산들이... 노래 부르는 계절입 니다. 가을의 식탁엔 엄마의 정성 이 스며여었습니다. 매미소리 요란 한 가을의 밤엔 시인의 숨결이 맥박 칩니다. 코스모스, 들국화 향이 그득 한 가을의 오솔길엔 18세 소녀의 랑 만이 뛰놀니다. 비타민처럼 활력이 넘치는 가을, 가을엔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화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시인으로 될 수 있습 니다. 가을은 꿈이 깃을 펼쳐는 기 분 좋은 계절입니다.

텅기면 터질 듯 맹맹한 가을 녀인, 아, 이 가을에 풍토와 인정에 취해, 그리고 술향과 문향에 젖어 한번 쯤 그녀와 진한 키스를 해본들 누가 뭐 라 할까요?

가을, 미처도 욕보지 않을 천고마 비의 가을, 그 가을이 그대의 가슴을 노크합니다. 퐁퐁, 쿵쿵! 당신은 준 비가 되어있습니까?

